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각장애 아동 가족 전시 감상 프로그램: 톡톡아이(Talk Talk Eye)  
            참여자 모집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노원구 동일로 1238)에서는 시각장애 아동 가족 과 함께 하는 전시 감상 프로그램 ‘<톡톡아이(Talk Talk Ey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성껏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가.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명	시각장애 아동 가족 전시 감상 프로그램: 톡톡아이(Talk Talk Eye)
대 상	시각장애 아동(초등학생 전 학년)을 동반한 가족(*일정 별 5가족, 선착순 모집)
운영 일시	- 1차: 10/4(금) 오후 4시 ~ 5시 30분(90분) - 2차: 10/5(토) 오전 10시 30분 ~ 12시(90분) - 3차: 10/23(수) 오후 4시 ~ 5시 30분(90분) <b>중 택1</b>
소요 시간	<b>90분</b>
강 사	성연진(오롯시 예술동 대표)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신청
장 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1, 2층 전시장
주요내용	본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의 주요 작품을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촉각 교구와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9월 9일(월) ~ 10월 1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홈페이지(<https://sema.seoul.go.kr/kr/whatson/landing>) 또는  
구글폼(<https://forms.gle/Lr6E5q4kbCVjrxrA6>)
- ※ 위 링크 접속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신청: [bukseouledu@gmail.com](mailto:bukseouledu@gmail.com)
- 선정 및 발표: 2024. 10. 2.(수) 14:00 \*개별 연락
- 참가비: 무료

**라. 신청 관련 문의:**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학예과(02-2124-5242, 5277)
- ※ 응대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전시 정보]



- 대상 전시 :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展
- 전시 기간 : 2024. 8. 22.(목) ~ 2025. 11. 3.(일)
- 전시 장소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장 1·2, 프로젝트 갤러리 1·2
- 참여 작가 : 구나, 김경두, 김동현, 김수자, 김옥선, 노예주, 몸동화, 민영순, 박영숙, 새훈, 송상희, 신미정, 오인환, 윤석남, 이우성, 이원호, 이은희, 이제, 이지양, 이지양×유하수, 임선희, 장파, 전나환, 정강자, 정은영, 주황, 최병소, 최태윤, 홍순명, 자크 블라스, 요하나 헤드바, 라이드 이브라힘, 진 마이어슨

### ● 전시 내용 :

SeMA 옴니버스는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의제 '연결'을 주제로 하여 본관과 분관 등 4곳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소장품 기획전이다.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는 집단화된 이야기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다른 개인들로 연결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이다.

전시는 인종, 국적,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성적 지향,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주목한다. 경쟁이 과열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소수자가 가진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문제 자체로 인식되지 않으며, 집단화하려는 시도는 빈번하게 와해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혹은 소수자가 사회에서 제 몫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화되더라도 개별적인

삶은 무시되고 집단화된 정체성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부분만 축소되어 “단일한 이야기”로 전달된다. 소수자는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집단을 필요로 하지만, 소수자 집단 내부의 결집 과정에서 소수자 개별의 다양성이 삭제되는 역설을 겪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수자를 집단화하지 않고 개별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예술을 통해, 취약한 개인이 자신을 긍정하고 서로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전시는 작업을 특정 정체성으로 범주화하여 보여주기보다 소수자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개인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접근성 안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엘리베이터, 수유실이 있습니다.
- 1층 안내데스크에서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며, 전시실 모든 공간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작품에 음성해설 및 자막해설, 촉각모형이 제공됩니다.
- 일부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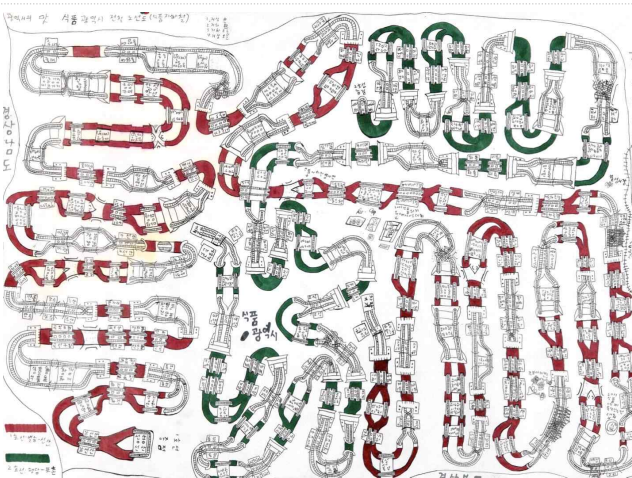
**● 전시 & 주요 작품 이미지**



전시 전경1



전시 전경2



김동현\_식품광역시 지하철 노선도



신미정\_ 울도